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4인까지만 가능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이 잠시 멈춘다

16일 김영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동안 '잠시 멈춤'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개인 간 접촉 감소를 위한 사회적 인원규모가 접촉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해진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과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운영시간 제한도 그룹별로 나눠 이뤄진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또 3그룹 및 기타업무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바스, 파티룸)

은 2시까지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가 축소되고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해진다. 300명 이상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되며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된다

학교도 밀집도를 2/3로 조정하고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이나 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강 시장은 "12월 들어 확진자 발생이 하루 평균 15명 내외로 발생해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되어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시장 김영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인준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한 스타트

군산시-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시장 김영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부의장 및 의장단 김영준 시장과 송철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 배경 설명, 기념사, 업무협약식, 협약 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시험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군대관리 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중선의 의회로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중선의 의회로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공공자원개발·공유 서비스 '전국 최우수'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유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발·공유 서비스 지자체 실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 추진 4개 영역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공공시설 주차장 및 회의실 공간 개방, 경로당 등

민간시설 공간 개방 자전거 무료 대여, 민간정원 시민 개방, 실내체육관 온라인결제시스템 도입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유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점 등 4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시기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아·아동 장난감대여, 방역물품 공유, 여성물품 공유 장터 등 다양한 공유 물품과 공간들을 공유하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발하게 했으며 시민들의 반응도 높았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코로나 차단 선제적 방역 '강화'

사적 모임 4인 제한... 공공체육시설 3차 접종자만 입장 허용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3차 접종자만 공공 실내체육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백신 3차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른 단계적 방역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 동안 백신 3차 접종자에 한 해 공공 실내체육시설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체육시설은 국민생활관, 합일스포츠타센터, 서부권역다목적센터, 배산 실내체육관, 김동문배드민턴장, 게이 트볼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실내 족구장, 문화체육센터, 시립도서관 내 체육관 등이다

다만 오미크론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범위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지역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7명 이상(현재 주간 평균 확진자 11명)일 경우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역 경로당의 경우 정부 지침에 의해 지난 8일부터 3차 백신 접종자에 한 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일 발표된 정부의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운영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마스크 착용,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로 정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시설 등은 오후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대시민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3차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위기 속 빛난 유망 강소기업과 성과보고회 가져

유망 강소기업들이 한 해의 성과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열려 기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유망 강소기업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AVON호텔 컨벤션홀에서 사업추진 성과를 전시 관람하는 한편 소통 간담회도 함께 가졌다

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전담 PM(Project

Manager)을 통해 성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해 주고 기술 혁신활동 관리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0개사, 2020년 5개사, 2021년 2개사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총 17개사를 육성 지원했다. 또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유망 강소기업들은 지난 3년간 시제품제작 30건, 공정개선 18건, 마케팅제작 16건 등 총 94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또 현장의 애로공정을 변경해 제품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기존제품에 대한 성능을 개선해 기술안정도를 제고 시킬 뿐만아니라, 마케팅 제작 활동으로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

그 결과 유망 강소기업은 군산국가산단 내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10%의 고용 증가와 12%의 매출이 상승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